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 특허청, '23년 지식재산 금융(담보대출, 투자, 보증) 규모 조사결과 발표 -
- '23년 지식재산(IP)금융 잔액 9조 6,100억원...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 -

#(지식재산(IP)담보대출 사례) 이차전지 및 자동화장비 제조기업 갑사는 사업확장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이차전지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통해 100억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1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제60회 무역의 날'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지식재산(IP)투자 사례) 거대언어모델(LLM)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초고속, 초저전력 인공지능 칩(NPU)을 개발하는 을사는 우수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때 투자사로부터 엔피유(NPU)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보유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2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후 '24년 시이에스(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식재산(IP)보증 사례) 유선 통신장비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병사는 원자재 구입자금 확보를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유특허 1건에 대한 지식재산(IP)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운영자금 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통해 납기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원자재를 확보하여,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눈앞에 두며, 지식재산(IP)금융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이 보유한 IP를 바탕으로 담보대출, 투자,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조사 시점('23년말) 기준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의 IP금융 금액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 조사 결과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은 9조 6,100 억원으로 집계됐고, '23년에 신규로 공급된 금액은 3조 2,4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3년 지식재산(IP)금융 잔액 9조 6,100억원...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9조 6,100억원)은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6.5% 증가*해,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이 중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2조 3,226억원, 지식재산(IP)투자는 3조 1,943억원, 지식재산(IP)보증은 4조 931억원으로 나타났다.

* IP 금융규모 잔액기준 추이 : (' 21) 6조 90억원 → (' 22) 7조 7,835억원 → (' 23) 9조 6,100억원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은행이 기업에 지식재산(IP)를 담보로 대출 실행
지식재산(IP) 투자	투자기관이 우수지식재산(IP) 보유 기업에 대해 투자 실시
지식재산(IP) 보증	보증기관이 기업 보유 지식재산(IP)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대출 실행

<'23년 지식재산(IP)금융 신규 공급 3조 2,406억원...지식재산(IP)투자, 지식재산(IP)보증 증가 추세 지속>

'23년 신규 공급된 지식재산(IP)금융 규모는 총 3조 2,406억원으로, 이 중 ①지식재산(IP)담보대출은 9,119억원, ②지식재산(IP)투자는 1조 3,365억원, ③지식재산(IP)보증은 9,922억원이다.

①지식재산(IP)담보대출(9,119억원)은 전년(9,156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신규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유인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 기업(BB+ 등급 이하)에 대한 지식재산(IP)담보대출은 84.16% 차지* 하며('22년 82.07%),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 '23년 IP 담보대출 기업신용등급 : 비우량(BB+이하) 84.16%, 우량(BBB-이상) 15.83%
'22년 IP 담보대출 기업신용등급 : 비우량(BB+이하) 82.07%, 우량(BBB-이상) 17.93%

②지식재산(IP)투자(1조 3,365억원)는 '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1조 2,968억원)한 이후 '23년에도 전년대비 3.1%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지식재산(IP)투자펀드 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자본(캐피탈) 등 민간투자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투자기업을 확대하면서, 지식재산(IP)투자가 기업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펀드

③지식재산(IP)보증(9,922억원)은 전년(8,781억원) 대비 13% 증가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은 지식재산(IP)에 잠재된 미래가치를 지식재산(IP)금융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 금융을 발판삼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붙임: '23년 지식재산(IP) 금융 현황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5258)
		담당자	사무관	윤규선 (042-481-5309)

□ IP금융 개요

- (개념)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 활동
- (유형)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를 기반으로 담보대출·투자·보증을 실행

IP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은행이 기업에 IP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
IP투자	투자기관이 우수IP 보유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하거나 특허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투자 실시
IP보증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대출 실행

□ IP금융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IP담보대출	4,331	10,930	10,508	9,156	9,119
			(19,597)	(21,929)	(23,226)
IP투자	1,933	2,621	6,088	12,968	13,365
			(8,628)	(19,330)	(31,943)
IP보증	7,240	7,089	8,445	8,781	9,922
			(32,147)	(36,575)	(40,931)
합 계	13,504	20,640	25,041	30,905	32,406
			(60,090)	(77,835)	(96,100)

* 신규공급 기준 수치이며, '21년~'23년 괄호 부분은 잔액 기준 IP금융 규모

□ '23년 IP담보대출 기업의 신용등급

(단위 : 개사, %)

구 분	등급	비우량			우량	
		열위	보통 이하		양호	우수
		CCC+ 이하	B- ~ B+	BB- ~ BB+	BBB- ~ BBB+	A- ~ A+
대출기업 수		56	388	539	166	19
(비 중)		(4.79)	(33.22)	(46.15)	(14.21)	(1.62)
			84.16%			15.83%

* '23년 특허청 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한 IP담보대출 기업(1,168개社) 조사 결과

* 나이스평가정보 제공 신용등급 기준 / '22년 BB+등급 이하 비중은 82.07%